

비즈 프리즘 | SK ICT패밀리, 5G 생태 활성화 위해 뭉쳤다

핵심자산 ‘API’ 전격 공개…“사회적 가치 구현”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텔레콤·C&C 등 오픈 API포털 구축
보유한 API 활용 매뉴얼·샘플 제공
T맵 등 46개…연말까지 85개 확대

SK그룹의 정보통신기술(ICT) 관계사들이 국내 연구개발(R&D)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았다.

SK그룹의 ICT 관련 기업인 SK텔레콤, SK 주식회사 C&C, SK하이닉스, SK플래닛, SK브로드밴드, 11번가, SK실트론은 26일 경기도 분당 ICT기술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공개하고 통합플랫폼 ‘SK 오픈 API 포털’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 포털을 통해 SK ICT 관계사들이 보유한 API 활용 매뉴얼과 샘플을 제



SK그룹의 정보통신기술(ICT) 관계사들이 5G 생태 조성을 위해 핵심 자산인 API를 외부에 무료로 공개하기로 했다. 박진효 SK텔레콤 최고기술책임자가 기술 공개를 통한 R&D 생태계 활성화와 상생 방안을 밝히고 있다.

공한다. 개발자와 벤처 기업은 이를 활용해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새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한 API는 T맵 등 SK텔레콤 19종, 에이브릴 등 SK 주식회사 C&C 12종,

클라우드 캠프 등 SK브로드밴드 13종, 그외 SK플래닛과 11번가 2종으로 총 46개다. SK는 연내 85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API는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구성하는 기본요소로 기업 핵심 자산으로 꼽힌

다. 산업이 고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갈수록 활용도가 커지고 있다. 기존엔 대부분의 서비스가 한 가지 기능만 수행하는 독립적 방식이었지만 이동통신 기술 발전으로 다양한 서비스와의 연결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SK ICT 관계사들은 이번 API 공개를 통해 5G 시대 새롭고 다양한 비즈니스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져 R&D 생태계 활성화는 물론 대중소 기업 상생의 대표적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진효 SK텔레콤 최고기술책임자(CTO)는 “5G 시대에는 ICT 기술과 서비스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속도로 변화할 것이다”며 “기업의 ICT 핵심 자산을 공유함으로써 5GX 생태 조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이바지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실물크기 ‘쥬라기 월드’ 공룡을 만난다

롯데백 김포공항점 28일부터 특별전

롯데백화점이 체험형 콘텐츠 ‘쥬라기 월드 특별전’(사진)을 통해 오프라인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롯데백화점은 26일 김포공항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8일부터 1년 간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에서 ‘쥬라기 월드 특별전’을 선보인다”며 “미국, 호주, 프랑스, 스페인에 이은 세계 5번째이자 아시아 최초로 열리는 전시”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전은 영화 ‘쥬라기 월드’의 스토리를 그대로 재현한 것이 특징이다. 영화 속 주인공처럼 공룡 거주지인 누블라섬에서 티라노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 등 공룡들을 실물 사이즈로 만날 수 있다. 애니매트로닉스(애니메이션+일렉트로닉스) 기술을 적용해 실제 살아 움직이는 것과 같은 느낌의 대형 로봇 공룡이다. 전시 관람한 후에는 쥬라기 월드 콘셉트의 카페와 쿡스숍을 이용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은 서울, 인천, 경기에서 1시간 내 접근이 가능하고 공항과 인접해 있어 국내 고객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도 노련다는 전라이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홍남기 부총리 “게임 섯다운제 단계적 개선”

26일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게임 섯다운제의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6일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경제협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게임 섯다운제를 단계적 완화할 계획이다. 섯다운제는 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인터넷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한 제도로, 2011년부터 시행해 왔다. 그동안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정부는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부모가 요청할 경우 적용을 제외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모바일 게임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온 PC온라인게임의 성인 월 50만 원 결제 한도 제한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명근 기자

후후 ‘위험 전화 알림 서비스’ 도입

후후엔컴퍼니는 전화사기 범죄에 취약한 계층의 피해 예방을 위해 스팸 차단 애플리케이션 후후에 ‘위험 전화 알림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용자가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으로 분류된 위험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받으면 이를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다. 후후를 통해 상호 등록 설정만 하면

간편하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한 이용자당 최대 10명의 피보호자를 등록할 수 있다. 후후엔컴퍼니는 알림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 외에 통화 종료율 유도하는 경고음을 피보호자에게 전송하거나 강제 통화종료 기능도 추가로 도입하는 등 앞으로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김명근 기자

면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392명 출전…삼성화재배 통합예선 개봉박두

30일부터 프로·아마추어 기사 격돌
세계챔프 출신 3명 포진한 A조 눈길

삼성화재배 월드바둑마스터스 통합예선이 30일부터 7월5일까지 서울 마장로 한국기원에서 열린다. 본선 진출을 다투는 통합예선은 아마추어 기사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해 프로와 아마가 ‘계급장’을 떼고 겨루는 지옥의 링이다.

이번 통합예선에는 대회 사상 최다인 392명이 출전해 일반조, 시니어조, 여자조, 월드조의 4개조로 나뉘어 격돌한다. 일반조 14장, 시니어조와 여자조 각 2장씩 4장, 월드조 1장의 본선행 티켓이 걸려있다. 일반조는 20 대 1, 시니어조 19 대 1, 여자조 28.5 대 1, 월드조는 16 대 1의 경쟁률을 뚫어 본선에 합류할 수 있다.

전기 대회 4강 진출자 4명, 본선 시드 8명, 와일드카드 1명은 본선 32강으로 직행한다. 4강 진출자는 중국의 커제, 세알하오, 탕웨이싱 9단과 한국의 안국현 9단이지만 안9단은 군 복무 중이라 이번 대회에 불참한다. 안국현을 대신해 국내 프로기사 랭킹 4위인 변상일 9단이 본선에 참가하는 행운을 얻었다.

한국 4명, 중국과 일본에 각 2명씩 배정된 본선 시드는 박정환, 신진서, 김지석, 신민준 9단(이상 한국)과 양딩신, 천야오예 9단(이상 중국), 이아바 유타 9단, 쉬자위안 8단(이상 일본)에게 돌아갔다. 와일드카드 1장은 통합예선 후 발표된다.

통합예선 대진추첨 결과 최철한, 스웨, 당이페이 9단 등 세계챔피언 출신만 3명이 포진한 A조가 ‘죽음의 조’로 꼽히고 있다. 일반조에서는 한국기원 소속 연구생 3명과 아마추어 예선 통과자 9명 등 12명



2018년 7월 통합예선이 진행 중인 한국기원 대회장. ‘꿈의 무대’인 삼성화재배 본선진출을 노리는 각국 기사들의 표정이 심각해 보인다.

사진제공 | 한국기원

이 합류해 본선행에 도전한다. 지난해에는 연구생 출신 윤성식이 아마추어 선수로는 8년 만에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한편 삼성화재 유성캠퍼스에서 열리는 본선은 8월29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30일 32강전부터 9월2일 4강전까지 논스톱으로 진행해 결승 진출자를 가린다. 하루 휴식 뒤 열리는 결승전은 9월4일부터 6일까지 3번기로 벌어진다.

중국 4연패 중인 삼성화재배의 통산

우승 횟수는 한국이 12회로 최다 우승 기록을 보유 중이다. 중국이 9회, 일본이 2회 정상을 밟았다. 전기 대회 결승에서는 중국의 커제 9단이 안국현 9단에게 2-1로 역전승하며 대회 세 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019 삼성화재배 월드바둑마스터스의 총상금 규모는 7억 8000만 원, 우승상금은 3억 원이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한 눈으로 보는 경제

26일

코스피지수	2121.85	▲	+0.21
코스닥지수	709.37	▼	-0.65
日 닛케이 지수	2만108.59	▼	-107.22
中 상하이 종합	2976.28	▼	-5.79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1.48	▲	+0.04
환율 (원·달러)	1157.50	▲	+1.50
국내금값 (원/그램 g)	5만2401.06	▼	-798.17

현대바이오 28일 新항암치료법 발표
‘노엘 항암 테라피’…기술적 장점 소개

현대바이오(대표 오상기)는 대주주인 씨애플이 연구·개발한 차세대 항암치료법 ‘노엘(NOEL) 항암 테라피’를 28일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GBC) 2019’에서 발표한다.

식약처가 바이오산업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매년 주최하는 GBC는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바이오 혁신,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열린다. 이번 GBC에는 미국 베일러 의과대학 말론 브레너 박사, 美 식품의약품(FDA) 사인 청 차우 박사 등 세계적 석학과 화이자, 큐어백, 삼성바이오로직스, 녹십자, 셀트리온 등 대표적 바이오 기업들이 참가한다.

현대바이오는 이번 GBC 발표에서 노엘 항암 테라피의 기술적 특징과 장점 등을 국내외에 최초로 소개한다. 현대바이오는 노엘 항암 테라피 완성을 위해 대주주인 씨애플과 공동으로 미국 등 국내외에서 난치성 질환인 췌장암을 대상으로 글로벌 본임상 돌입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비타500 마시고 여행상품권 타세요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 비타500이 ‘파자마자 젊음충전 경품 대축제’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비타500 100ml 제품을 구매한 뒤 병뚜껑 안쪽에 적힌 등수 문구를 통해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경품으로 300만 원 상당의 여행상품권, 의류건조기, 스타일러, 공기청정기, 백화점상품권 5만 원권, 비타500 젤리, 영화예매권을 증정한다. 8월31일까지 진행하며 경품 교환 기간은 9월30일까지다.

정용운 기자



“다이아몬드 팝업스토어로 오세요”

현대백화점 판교점이 7월 7일까지 1층 열린광장에서 ‘골든듀 다이아몬드 월드’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4m 높이의 다이아몬드 반지 모형을 설치했고 다이아몬드 원석을 품은 모암과 다이아몬드의 탄생 과정을 소개한다. 7월 3~7일 골든듀 전 제품을 30% 할인 판매한다.

정정욱 기자, 사진제공 | 현대백화점